“지금의 나를 만든 원동력은 ‘긍정 에너지’”

KIA 박재현, 올 시즌 ‘최고의 히트상품’ 예약

공·수·주 핵심…리드오프 적응 완료 “이제는 많이 편해져”
꿈 향한 도전은 현재진행형…“3할 타율 유지가 최대 목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외야수 박재현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올 시즌 가장 핫한 선수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들뜨지 않았다. 지금보다 앞으로를 더 바라보고 있다.

박재현은 지난 3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성적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경기까지 52경기에서 타율 0.306, 8홈런, 30타점, 12도루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58경기 타율 0.081에 그쳤던 선수다. 분명 믿기 어려운 변화다.

타격뿐만 아니라 외야 수비에서도 핵심 자원이다. 좌우 가리지 않고 넓은 커버 범위와 강한 송구가 장점이다. 상대 배터리를 흔드는 빠른 발도 무기다. 팀 내 가장 많은 도루를 올렸고, 실패는 단 1차례다.

공수주 모두에서 빼놓기 어려운 선수로 자리 잡았다.

KIA가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다.

성장의 배경으로 그는 기술보다 멘탈을 먼저 꼽았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려고 했다”며 “스프링캠프 때부터 카스트로가 여러 부분을 알려준 것도 도움이 됐다”고 돌아봤다.

학창 시절 꿈꾸던 모습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 때 상상했던 것이 1군에서 주전으로 뛰는 모습이었다”며 “지금은 그 바람대로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1번 타자로 자리 잡는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시즌 초반 9번 타자로 출발했다. 어느 순간 1번에 섰다. 많이 낯설었다.

“리드오프 역할이 주어지니 부담이 있었다”며 “하지만 계속 경기에 나가다 보니 최근엔 많이 편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은 경기에서 가장 먼저 타석에 들어가는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팬들의 관심도 크게 늘었다. 그만큼 책임감도 커졌다.

박재현 〈KIA 타이거즈 제공〉

그러나 그는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야구를 잘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20살이다. 야구를 하면서 되레 잃은 것은 없냐는 질문에도 자신감이 넘쳤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야구다. 오히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답했다.

성장의 과정에는 선배들의 조언도 큰 힘이 됐다.

그 중심에는 주장 나성범이 있었다.

“성범 선배님과 항상 같이 다닌다”며 “멘탈적인 부분은 물론 야구장 밖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상대 팀들도 더 이상 박재현을 낯선 선수로 보지 않는다. 시즌 초반과 비교해 승부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빠른 공 승부가 많았다. 요즘에는 변화구를 섞어 던지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리그의 분석도 시작됐다. 올 시즌 불리한 카운트인 0-2에서 타율 0.143, 1-2에서 타율 0.179를 기록 중이다. 삼진도 40개에 이른다.

시즌 초반과는 다른 숙제가 생긴 셈이다.

아직 자신만의 해법은 찾지 못했다.

“아직은 따로 그런 방법은 없다.”

여전히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올 시즌 목표는 뚜렷하다.

“3할 타율을 유지하고 싶다”며 “쉽지 않은 기록이지만 도전해보고 싶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지난해 생존을 걱정하던 유망주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 박재현의 시간은 이제부터다.

/주홍철 기자

SOOP, 구단명 ‘SOOP 수퍼스’ 확정

초대 감독에 김세진 선임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SOOP이 여자 프로배구단의 새 이름을 ‘SOOP 수퍼스(SOOPers)’로 확정하고 초대 사령탑으로 김세진 감독을 선임했다.

최근 AI 페퍼스를 인수한 SOOP은 새로운 구단 출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4일 팀명과 초대 감독 선임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구단명인 ‘SOOP 수퍼스’는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는 SOOP 플랫폼처럼, 각기 다른 개성과 강점을 지닌 선수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팀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OOP은 선수와 팬이 함께 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구단의 방향성을 팀명에 담았다. 이를 위해 경기와 중계,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접점에서 팬들과 호흡하며 구단의 정체성을 쌓아간다는 계획이다.

초대 사령탑 김세진 감독은 삼성화재와 국가대표에서 선수로 활약했으며, 은퇴 후에는 OK저축은행 감독을 맡아 팀 출범 2년 만에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이끈 바 있다. 이후 KBS N 스포츠 해설위원과 한국배구연맹 경기운영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배구계 전반에서 활동해왔다.

이번 감독 선임은 신생 구단 운영 경험과 팀 구축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 SOOP은 창단 초기 선수단 구성과 조직 안정화 과정에서 김세진 감독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OP은 앞으로 선수단 구성과 코칭스태프 선임, 구단 운영 체계 구축 등 창단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준비된 김효주, US오픈 정조준

김세영 등 태극낭자 23명 출격

여자 골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이 5일 막을 올린다.

81회째인 올해 US여자오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의 리비에라 컨트리클럽(파71)에서 나흘간 펼쳐진다.

156명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 한국 선수는 23명이 나선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이번 시즌 2승을 거둔 세계랭킹 3위 김효주가 선봉에 선다.

김효주는 올해 2승을 포함해 4차례 톱10에 들며 CME글로브 포인트와 올해의 선수 포인트에서 모두 넬리 코르다(미국)에 이어 2위를 달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꼽힐 만하다.

김효주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건 LPGA 투어 회원이 아닐 때인 2014년 9월 에비앙 챔피언십이 유일하다.

김효주는 4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 이후 LPGA 투어 대회엔 출전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초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정상에 올랐다.당시 메이저 대회 우승을 목표로 제시한 그는 US여자오픈에 대비해 컨디션을 조절해왔다.

김효주가 US여자오픈을 앞두고 연습라운드를 소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김효주 외에 LPGA 투어에서 뛰는 한국 선수로는 최혜진, 황유민, 전인지, 임진희, 김아림, 박성현, 양희영, 윤이나, 김세영, 고진영, 이미향, 이소미, 이정은, 강민지가 올해 US여자오픈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전인지와 박성현, 이정은, 김아림은 역대 US여자오픈 챔피언이다.

2020년 김아림 이후엔 한국인 우승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엔 최혜진이 공동 4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LPGA 투어에서 시즌 3승을 거두며 여자 골프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은 코르다는 셰브론 챔피언십에 이어 메이저 대회 2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2% 부족했던 ‘압박 탈출·세트피스 완성도’

홍명보호, 엘살바도르 상대 최종 모의고사…이동경 결승골 1대0 ‘진땀승’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무대를 앞두고 펼친 두 차례 평가전에서 2연승을 거두고 기분 좋게 모의고사를 마쳤지만 전술적 완성도에선 여전히 ‘2% 부족함’을 남겼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4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인근 프로보의 브리검영대 사우스필드에서 열린 엘살바도르(FIFA 랭킹 100위)와 평가전에서 1-0으로 이겼다.

◇강한 압박에 활로 뚫지 못한 홍명보호…조규성 고립 ‘아쉬움’

‘수비 때 스리백-공격 때 포백’을 앞세운 ‘가변 스리백’ 전술을 가동한 홍명보호는 경기 초반부터 직전 상대였던 트리니다드토바고와는 차원이 다른 엘살바도르의 강력한 중원 압박에 답답한 경기를 치러야 했다.

엘살바도르는 중원의 핵심인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이재성(마인츠)을 집중 마크하며 패스 길을 미리 차단하는 전술로 홍명보호의 공격 전술을 방해했다.

중원부터 강하게 싸움을 걸어온 엘살바도르의 작전에 한국은 공중볼에 강점을 가진 원톱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에게 볼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고립돼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애를 먹었다.

특히 중원에서 패스가 끊긴 뒤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엘살바도르의 빠른 역습에 처음 호흡을 맞춘 이기혁(강원)-김민재(뮌헨)-이한범(미트윌란) 스리백 조합은 다소 불안한 모습도 보여줬다.

상대의 압박을 풀어낼 짧고 정교한 패스 호흡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홍명보호는 전반전 동안 세트피스 이외에는 눈에 띌 만한 공격 기회가 없었다.

4일 열린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에서 이동경이 골을 성공시킨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그레이드 필요한 ‘세트피스 완성도’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득점에 이르는 가장 쉬운 길은 세트피스다. 특히 문전에서 따낸 프리킥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날 태극전사들은 이날 여러 차례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에 큰 위협을 주기엔 부족했다.

전반 7분 왼쪽 중원에서 황인범이 골대를 향해 시도한 프리킥은 골키퍼 정면을 향했고, 전반 29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의 프리킥 시도마저 크로스바를 훌쩍 넘고 말았다.

전반전 세트피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2분 페널티아크 오른쪽 부근에서 ‘왼발 스페셜리스트’ 이동경(울산)의 기막힌 슈팅 한 방이 골대 안으로 파고들었고, 이 득점은 결국 결승 골이 됐다.

한국은 후반 코너킥에선 짧게 찬 뒤 다른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를 이어갔지만, 득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단체구기종목 지원사업’ 국비 3억원 확보

‘집중훈련캠프·영재발굴 프로젝트·지역교류전 지원’ 3개 분야 선정

전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 ‘2026년 단체구기종목 지원사업’ 공모에서 집중훈련캠프, 영재발굴 프로젝트, 지역교류전 지원 등 3개 분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

집중훈련캠프는 목포스포츠클럽과 순천스포츠클럽이 각각 선정돼 축구 종목에 각 5천만원씩 1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영재발굴 프로젝트 분야는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강진군청자FC(축구, 2천만원), 보성스포츠클럽(축구, 2천만원), 영암군스포츠클럽(야구, 2천만원), 전남도체육회(9천만원) 등 4개가 각각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역 내 유망 선수 발굴과 체계적인 전문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래 체육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교류전 지원 분야에서는 강진군체육회(2천500만원), 화순군체육회(2천500만원)에 총 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체육회는 도내 스포츠클럽이 중심이 돼 학교운동부, 사설 클럽 등과 교류전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내 단체구기종목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중 기자